

2002년 12월 20일

선대위 지도부 오찬 연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선거대책위원회 참여하셔서 열심히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께서 함께 모인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또 지지자들 또 당원동지들이 다 함께 뛰어주셨습니다. 그분들의 한 방울 한 방울 땀이 모여서 오늘 우리 값진 승리를 이끌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 동안에 다니면서 당선되기 전에도 기뻐했습니다. 기운이 빠져있었던 우리 당원동지들이 전부 새롭게 용기를 내어서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저한테는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옛날에는 당원들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전혀 아무런 보상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나와서 뛰는 바람에 선거의 문화라든지 분위기 같은 것이 달라지는 모습도 함께 느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에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참 자랑스럽고 여러분들도 함께 크게 보람을 느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자면 얼마나 힘이 드셨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겪었던 그 어려운 여건을 다 극복하고 힘을 모아주시고 또 새로운 선거문화까지 만들어내신 여러분들께 각별히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제 스스로도 여러 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여러분들께서 저를 잘 지켜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은 많은 국민들이 나서서 어려울 때마다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소액성금은 아마 우리 한국 정치사에 좋은 선례로 기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한 돼지저금통 그것은 또 우리 유권자들에게 자기들이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가꾸어 갈지에 대한 큰 이정표를 마련해준 좋은 사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크게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출발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이 국민들의 여망을 잘 감당해야 할텐데 하는 마음의 부담도 없지 않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로 지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주시고 힘까지 이렇게 보태주십시오. 언제나 잘 하기만 하겠습니까, 잘못할 때도 많고 또 모자람도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격려해서 잘 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5년 뒤에 여러분들과 다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국민들에게도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만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제 책임이고 소망입니다. 그렇게 하자면 저 혼자 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여러분들이 힘을 합해주셔야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과 자주 대화하면서 많은 의견들을 수렴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드는 것이 국민들의 의견을 받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대화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또 그 분과 함께한 한나라당관계자 여러분들께 위로 말씀드리고 앞으로 성숙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늘 함께 하고 또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국민들의 변화, 그 변화의 바람 이런 것을 정말 새롭게 한

번 더 살펴보고 받들어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 저도 참 괜찮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국민들과 함께 선거를 치르면서 미처 생각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발견하고 좀더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 제 스스로에게 낡은 정치의 타성이 그냥 남아서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을 참 두렵게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대통령 하면서 제가 이번에 대통령 당선되었고 당선되는 과정에서 그래서 국민들 제일 가까이 갔다 이런 자부심 가지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족함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낡은 생각에 또 안이한 생각에 안주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다듬겠습니다. 또 배우고 또 깨치고 또 생각하고 (박수소리)

이제 우리정말 새로운 정치 한 번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 의사당에는 당파만 있었습니다. 우리 언론에는 끊임없는 냉소만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비관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에 새로운 미래가 열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정치하는 분들이 먼저 나서서 비관과 냉소를 깨끗하게 청산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모범을 한번 보이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소리)

밥상 앞에 놓고 제가 얘기를 길게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점심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잡수시고 또 새롭게 출발하십시오. 모두들 옛날에 이런 저런 불신과 갈등들 다 극복하고 이제 또 새롭게 출발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면서 새로운 민주당 한번 우리가 건설하고 그것이 우리 새로운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국민들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봉사하는 민주당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같이 한번 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